

# 일본, 대만, 홍콩의 결핵관리와 그 문화를 배우며

이 판 문 / 대한결핵협회 홍보과장

**아편** 전쟁의 패배로 영국에 할양 하였던 홍콩땅이 7월 1일 중국에 반환 된다고 한다. 반환 전후, 홍콩방문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 금년도 동남아 결핵관리연수 일정은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졌다.

5월 21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이웃나

라 일본, 홍콩, 대만의 결핵실상과 국가 결핵관리 현황 및 결핵협회 기능과 관리 등 각국의 결핵관리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고 비교 견학을 통한 새로운 정보 취득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각 시·도청의 결핵관리 관계자 및 본회 본, 지부 직원 16명이 동행하였다.



▲대만 고궁박물관 앞에서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 뒷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가 필자.

드디어 비행기는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미끄러져 저만큼에 서울시경과 우리의 산야를 내려다놓고 구름에 가려져 멀어지고 있었다.

우리 일행 16명이 이국에서 보내는 10 일동안 모두 건강하고 다시 이 공항에 무사히 안착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깜빡 잠이 들었다.

비행기는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 바로 일본결핵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 버스를 탔고 점심식사는 이동중에 도시락으로 하기로 했다.

도시락은 생각보다 맛있고 실속있게 차려진 것 같았고, 흰쌀밥 위에 얹혀 있는 붉은 열매 하나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끝내고 가는 도중에 가이드는 일본문화와 도로 주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점심때 도시락의 붉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다.

그 열매는 매실이고 흰밥위의 붉은색 열매는 일장기를 뜻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고 불현듯 여기가 일본이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공항을 출발하여 3시간여쯤 지나 일본 결핵연구소에 도착했다.

연구소를 들어서니 건물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조화롭고 깨끗해 보였다. 우리 일행은 관계직원의 안내로 3층 강의실로 향했다. 석천신극(石川信克)부소장께서 제2연구부차장과 역학과장을 대동하고 반갑게 맞아 주었고 곧바로 결핵연

구소의 조직과 하는 일에 대한 설명등을 가이드 김승영씨의 통역으로 들었다.

결핵연구소는 지난해 7월 조직을 일부 개편 하였고, 홍보, 조사연구, 환자발견 및 치료, 결핵의 호흡기 질환의 진료 및 금연운동, 국내 결핵사업 종사자 연수 교육, 개발도상국 결핵 전문인력 연수 훈련, 국제협력사업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본의 결핵실상은 최근 들어 결핵환자의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활동성 결핵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며 환자발견의 지연으로 치료가 지연되어 집단감염이 증가 하고 환자의 고령화, 중병화, 재일 외국인 환자의 증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폐암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결핵 예방회는 폐암 발생의 주원인을 흡연으로 추정하고 금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결핵관리 체계는 정부조직과 결핵연구소가 전산망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면역인구 확대, 환자조기발견 및 발견환자 치료관리, 보건교육등을 중점 과제로 우리나라 결핵관리사업 기본방향과 비슷했다.

우리 일행은 비시지 접종, 결핵균검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재정에 관한 사항 등 다방면에 걸쳐 예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았다.

그리고는 연구소와 복잡자병원을 견학했는데 병원의 진료 및 입원환자가 결핵보다는 결핵외 호흡기 및 폐암환자가 훨씬 많다는 설명이었고 에이즈 병동도 있다고 했다.

병원은 시설관리와 공간 활용을 짜임새 있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좁은 공간에 책과 독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결핵연구소 방문일정을 마치고 숙소인 시내 호텔로 이동 하였다.

이튿날 동경 시내 명치신궁, 황거, 동경도청 전망대등을 관광하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어우러져 숨쉬는 일본과 자기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본인에 대해 강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짧은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홍콩으로 향했다.

홍콩의 날씨는 습도가 조금 높긴 했지만 쾌청했고 우리는 해변가의 도교 사원을 잠시 둘러보고 바로 마카오로 이동, 말로만 들던 '카지노'장과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가 수학 했다는 "성폴" 천주교 성당을 둘러보고 개방화 물결을 타고 있는 국가 중국의 경제특구 심천으로 가는 배를 탔다.

항구가 가까워지자 저멀리 보이는 대형 붉은글씨 간판이 오성기의 중국 뱀새가 물씬 풍기는것 같았고 거대한 대륙 중국땅을 밟아 본다는 감회에 젖었다.

우리는 중국의 명승고적을 축소하여 시설한 소인국을 관광하고 민속촌에서 여러 민족이 역사속에서 이어온 전통민속쇼와 야외쇼를 관람하고 그 다양함과 융대함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고 자본주의 경제에 젖어들고 있는 중국의 심천시 풍속도를 본 놀라움을 남긴채 열차를 이용하

여 다시 홍콩으로 이동했다.

홍콩에서의 밤을 보낸 다음날 공식 일정으로 홍콩방노심장 및 흉병협회를 방문 했다. 지난해 우리 협회를 방문했던 진영의(陳英儀)씨가 정문에서 기다리다 무척 반가워하며 먼저 Ruttonjee병원으로 안내, 병원 관계자로부터 비시지접종과 결핵환자의 능동적인 발견 및 환자가 약물 담당자 앞에서 복용하는 투약감시 체제등 치료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전학후 협회로 다시 방문했다. 협회에서는 유익봉(俞翊鵬)행정비서(총장)께서 홍콩의 일반사항과 결핵실태, 결핵진료소 운영, 홍보사업등 결핵관리사업 전반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했고 몇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자유분방하고 소탈해 보이는 유총장께서는 기념촬영을 하고 협회 여러 직원과 함께 우리 일행을 전송하여 주었다.

우리는 마지막 방문국인 대만으로 가기위해 공항으로 이동하였고 홍콩공항에서 그동안 우리가 마음적으로 많이 의지했던 대전, 충남지부 심치부장님과 작별을 고해야 했다.

대만 중정공항에 도착하니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북시에 도착해 저녁식사를 하기엔 좀 이른 시각이라 시중심가에 있는 용장사와 대만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물건과 토속적인 먹거리가 있는 야시장을 둘러 봤다. 상가와 주거 지역속에 있는 용장사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불교사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토속적인 신을 모시고 있었고 돌기둥의 조각은 신의 경지에

다달은 인간의 예술작품으로 느껴졌다.

대만에서 첫밤을 보내고 열차편으로 화련으로 향했다.

대만섬 동쪽변으로 철길은 26개의 터널을 통과하는 험한 길로 주변에 웅기종기 시골 마을이 아담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가이드 설명이 대만은 시골이 도시보다 소득이 높고 살기가 좋다니 대만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리라 느껴졌다.

화련에서 고산족의 민속쇼를 보고 강개석이 대만으로 퇴각하여 군작전상 필요 불가결하여 만든 동서황관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고자 진입했다.

우리나라 설악산 한계령길보다 좀 험하겠지 하고 생각하였는데 막상 들어서고 보니 꿈속에서나 보는 길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두려움과 희열이 교차했던 시간을 지나 곡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일행들은 밝은 모습으로 일월담, 현장사, 문무묘를 관람하고 다시 대북시로 돌아왔다.

5월 29일 공식기관 방문 일정으로 중화(대만)민국 방노협회를 방문 하였다. 지난해 우리 협회를 방문하셨던 양사표(楊思標)이사장과 곽문화(郭文華)부비서장께서 무척 반가워 하시며 맞아 주었고 임도평(林道平)대만성 만성병방치국장 겸 협회 상무이사와 황심자(黃心慈)소장이 협회 운영과 환자관리에 대한 설명과 간담회 형식의 질의 응답을 하였다.

대만의 결핵은 정부 주관으로 등록 치료관리 하고 있으며 최근에 실시한 제8차 전국결핵실태조사(93.10~94.6) 잠정 분석결과 결핵유병률은 0.65%, 균양성

률은 0.06%로 예상되고 '95년도 결핵병 사망자수는 1,599명으로 사망질병 순위 12위 라고 하였다.

협회 운영재원은 정부지원금, 건물임대료, 병원운영수입 및 썰판매금으로 충당 한다고 하며 근래에는 결핵환자가 점점 줄어 전체 진료환자의 10%미만이라고 했다. 우리는 기념촬영과 병원 견학을 하고 현관 밖에 까지 전송나온 부비서장의 아쉬워함을 뒤로 하고 충열사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은 경치가 수려한 명당터인듯한 산기슭에 장엄하게 자리잡고 있었고 소장품은 70여만점에 이른다고 하였다.

수천년전의 유물의 완벽함과 다양함에 우선 놀랐고 그 정교함에는 무엇이라 표현할수가 없이 그저 감탄할 뿐이었다. 특히 상아, 옥돌, 씨앗의 조각품은 인간의 능력 한계를 가늠할 수 없게끔 했고 죽편글씨, 직수품, 도자기등 인간이 최선을 다한 작품은 신비롭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유물들을 다 보고 이해 하자면 자신의 생애를 다 보내도 어렵다고 하는데 3시간여에 무엇을 보았을까 마는 인류 최고의 걸작품이 있는 보고였다.

5월 30일 야류해양공원을 마지막 일정으로 돌아보고 서울에 무사히 돌아왔다.

끝으로 이 지면을 빌어 9박 10일동안 서로 돕고 아껴 주셨던 연수자 여러분과 전문을 넓힐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